



2014년 7월 31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계량분석 | 안 혁 ☎ 3276-6272
 파생/ETF | 강송철 ☎ 3276-6181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트 | 김기명 ☎ 3276-6206



• 글로벌전략

정책기대 효과와 아시아 주식의 반등

• 이머징마켓 동향

차익실현 부담으로 주요 이머징 동반 하락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에스원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파트론 외 5개 종목

• 기업분석

기업은행, 다음, 삼성전기, 유한양행, 한국타이어,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GS홈쇼핑, KT, 만도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유가 증권	구분		7/23(수)	7/24(목)	7/25(금)	7/28(월)	7/29(화)	7/30(수)
	종합주가지수		2,028.32	2,026.62	2,033.85	2,048.81	2,061.97	2,082.61
	등락폭		-0.61	-1.70	7.23	14.96	13.16	20.64
	등락종목	상승(상한)	437(6)	280(3)	480(5)	333(3)	278(2)	406(3)
		하락(하한)	400(1)	526(3)	321(0)	489(0)	538(0)	401(3)
	ADR		122.24	115.56	116.85	111.28	105.27	101.62
	이격도	10 일	100.77	100.57	100.70	101.17	101.57	102.24
		20 일	101.01	100.85	101.09	101.72	102.21	103.06
	투자심리		60	50	6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354	324	283	349	409	338
거래대금 (십억 원)		4,258	4,637	4,013	4,671	6,010	6,426	
코스 닥	코스닥지수		563.14	559.67	562.78	552.98	541.82	541.81
	등락폭		-1.79	-3.47	3.11	-9.80	-11.16	-0.01
	등락종목	상승(상한)	437(7)	280(8)	480(6)	333(5)	278(4)	395(4)
		하락(하한)	400(1)	526(8)	321(3)	489(5)	538(3)	542(6)
	ADR		112.92	106.49	105.87	96.32	86.61	83.65
	이격도	10 일	100.55	99.92	100.36	98.77	97.07	97.31
		20 일	101.83	100.93	101.20	99.30	97.32	97.38
	투자심리		60	50	6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330	376	314	329	334	309
		거래대금 (십억 원)	1,897	2,040	1,842	1,979	2,021	1,915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594.3	2,157.0	1,640.7	374.1	367.4	346.1	138.1	45.8	369.322	65.2
	매도	3,169.9	1,558.6	1,653.8	330.8	209.8	526.3	118.5	73.4	395.1	74.9
	순매수	-575.6	598.5	-13.1	43.3	157.6	-180.2	19.6	-27.6	-25.8	-9.8
	7 월 누계	-1,243.3	3,548.2	-2,071.3	-43.0	294.6	-1,391.3	-117.8	-252.5	-561.2	-233.5
	14 년 누계	-1,149.0	5,787.0	-4,057.9	-3,161.3	1,048.2	-2,568.2	-360.6	-1,351.5	2,335.5	-580.1
코스닥	매수	1,674.2	128.9	111.4	18.0	17.9	27.2	10.8	3.9	33.6	18.1
	매도	1,598.2	140.3	169.2	34.4	28.8	47.0	11.5	4.7	42.8	24.9
	순매수	76.0	-11.4	-57.8	-16.4	-10.9	-19.9	-0.7	-0.8	-9.2	-6.8
	7 월 누계	205.8	116.8	26.0	-37.8	61.2	-64.0	-17.5	-0.7	84.9	-348.7
	14 년 누계	220.7	761.2	-135.3	-42.6	133.4	-298.2	-122.3	-8.2	202.6	-846.7

정책기대 효과와 아시아 주식의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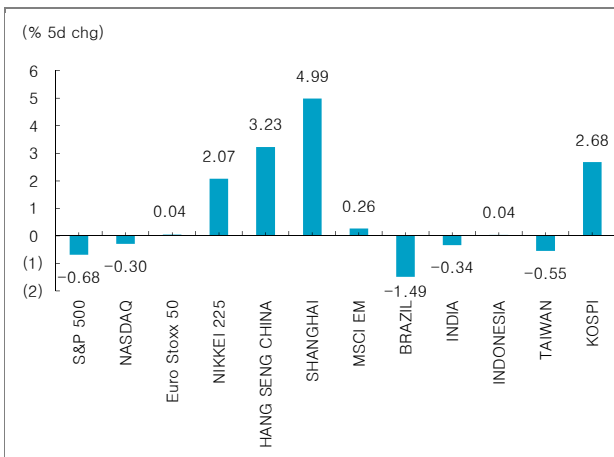
2014년 Target KOSPI	2,150pt
12MF PER	10.78배
12MF PBR	1.05배
Yield Gap	6.8%P

- ▶ 중국과 한국증시의 귀환
- ▶ 단기적으로 아시아 주식 강세 지속 전망
- ▶ 중국은 트레이딩 매수 구간, 한국은 정책 기대감 높은 업종에 집중

■ 리뷰: 중국과 한국증시의 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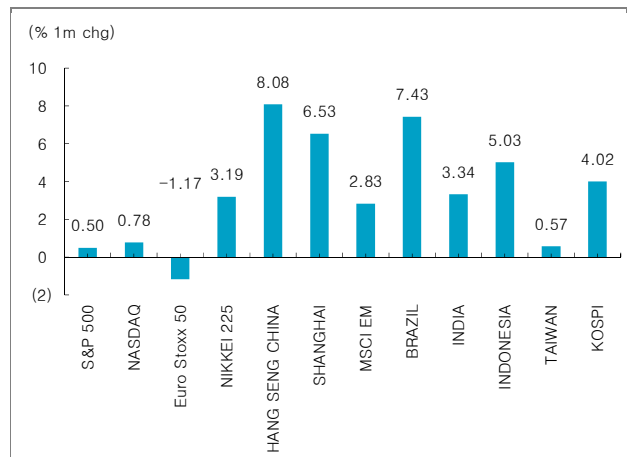
그 동안 수익률이 가장 부진하던 중국과 한국 증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한 주간 상해증시는 5% 가까이 올랐고 한국 KOSPI는 2011년 이래 최대치를 경신했다. 선진국 증시 가운데서는 일본 증시가 2% 넘게 올라 가장 양호했다. 최근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양호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정책 기대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의 선전이 돋보였다.

[그림 1] 주요 국가별 주가지수 수익률 - 5일



주: 2014.7.29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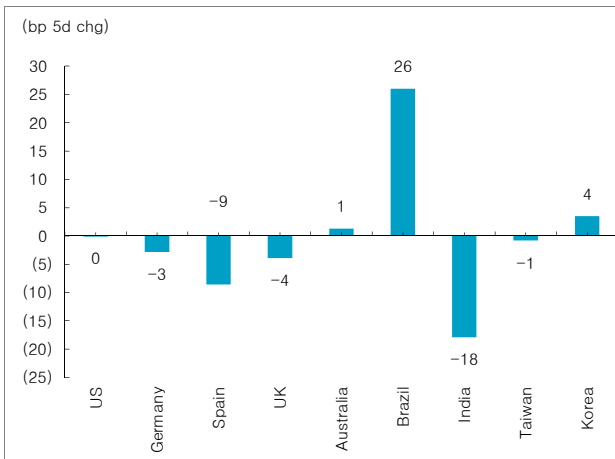
[그림 2] 주요 국가별 주가지수 수익률 - 1개월



주: 2014.7.29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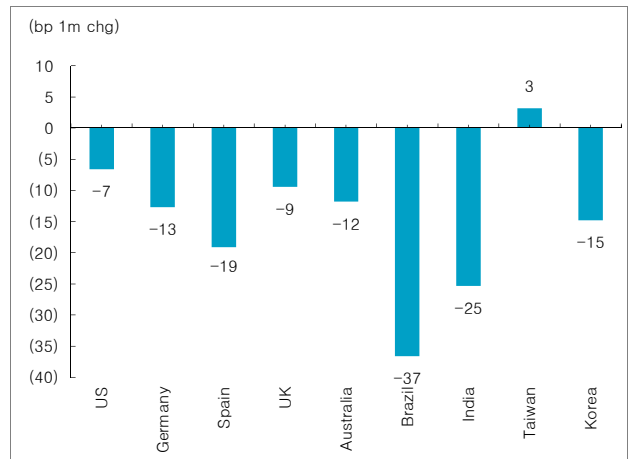
글로벌 채권 시장의 강세는 이어졌다. 브라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채권 금리가 하락했고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보면 금리가 1%대에 불과한 대만을 제외하면 모든 국가의 금리가 하락했다.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풍부한 유동성 등의 요인에 의해 채권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림 3] 주요 국가별 국채 10년물 수익률 - 5일



주: 2014.7.29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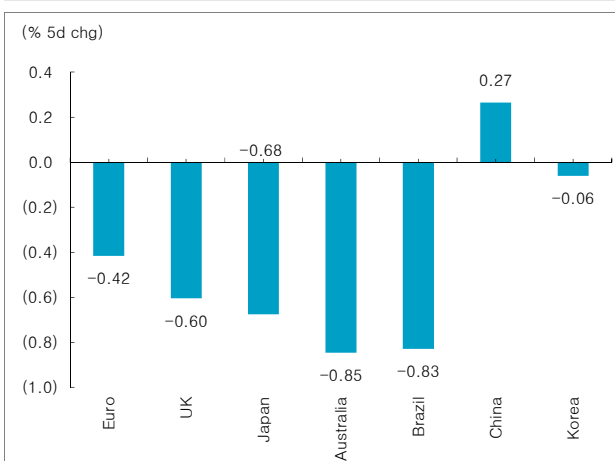
[그림 4] 주요 국가별 국채 10년물 수익률 - 1개월



주: 2014.7.29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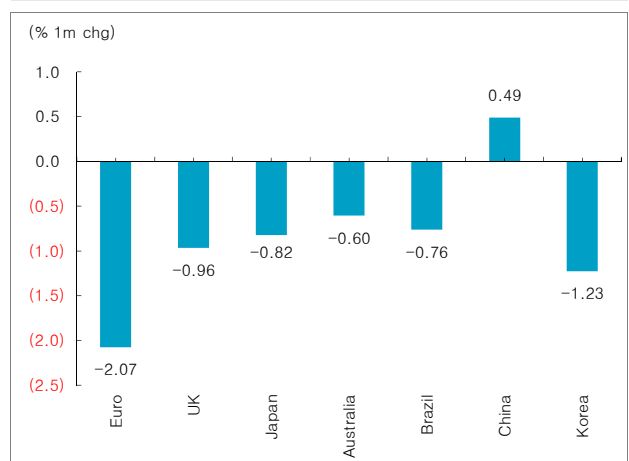
FX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가장 약세를 보이는 통화는 유로화인데 하반기 ECB의 추가 완화 정책 기대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위안화를 제외한 모든 통화들이 미국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머징 채권과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흥미로운 현상이다.

[그림 5] 주요 국가별 통화 수익률 - 5일



주: 2014.7.29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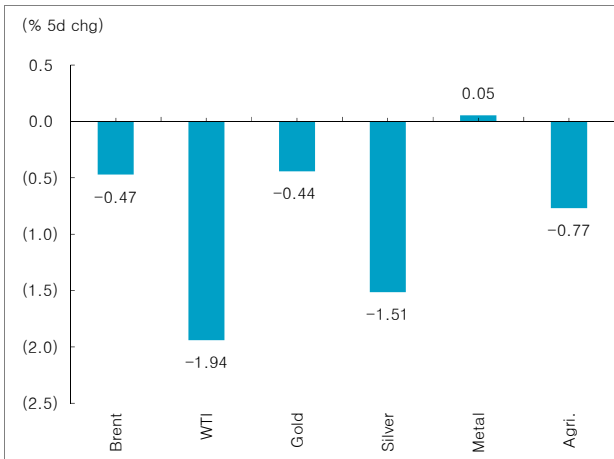
[그림 6] 주요 국가별 통화 수익률 - 1개월



주: 2014.7.29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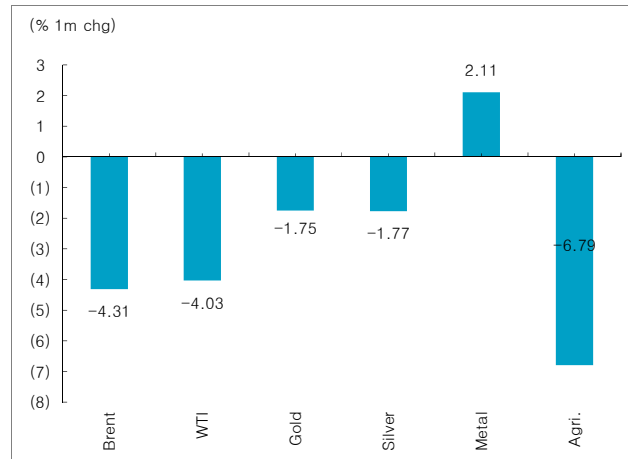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는 자산은 commodity이다. 비철금속을 제외한 commodity 가격은 최근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비철금속은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알루미늄, 아연 등의 금속에 대한 수요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 올해 여름 엘니뇨에 대한 우려가 높았지만 실제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근 농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그림 7] 주요 commodity 수익률 - 5일



주: 2014.7.29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8] 주요 commodity 수익률 - 1개월



주: 2014.7.29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전망: 단기적으로 아시아 주식 강세 지속

아시아 주식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 배경으로 세 가지 포인트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글로벌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산 매입 규모가 축소되고 있지만 금리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특히 유럽의 금리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리가 떨어지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아시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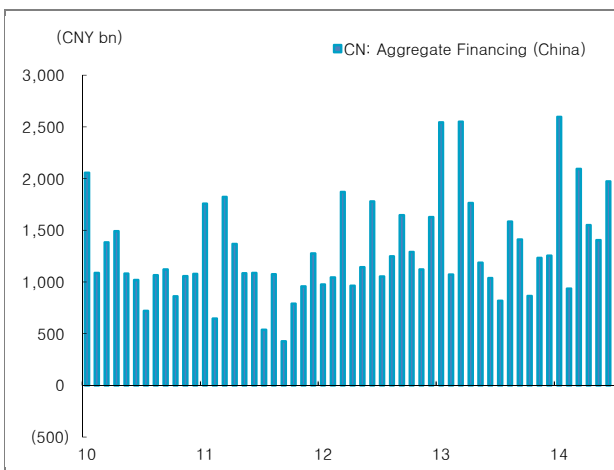
[그림 9] 미국채 10년물 금리



자료: Stockcharts.com,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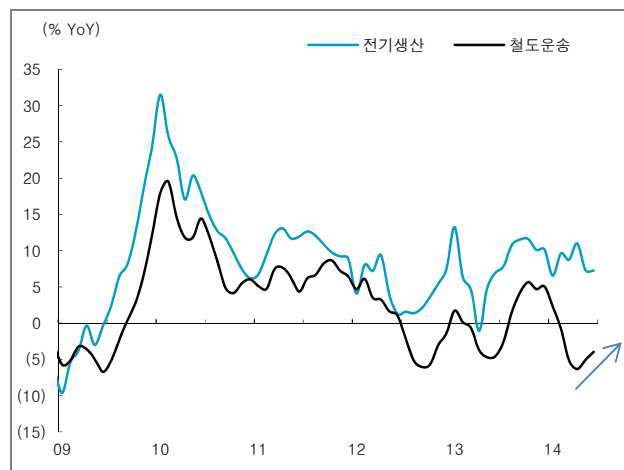
둘째 정책 효과로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6월 중국의 신규 사회융자총액은 1조 9,700억 위안을 기록했다. 2013년 6월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5월 이후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중국 정부는 다시 경기 부양책을 꺼내 들었고 이에 따라 최근 경제 지표가 안정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진행 중이어서 불안한 균형이기는 하지만 금융 시장은 중국 경제가 안정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림 10] 중국 신규대출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중국 전기생산과 철도운송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셋째 아시아 국가의 구조조정이나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 모디노믹스, 인도네시아의 정권 교체, 3중 전회 이후 중국의 구조조정, 한국 새 경제팀의 내수 부양정책 등 구조조정이나 정부 정책이 올해 아시아 시장 내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할만하다.

정책 기대감에 의한 랠리는 정치와 경제가 만나는 지점이다. 사실 정치와 경제는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어렵다. 상부구조든 하부구조든 간에 정치와 경제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적 이벤트나 정책이 금융시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 종종 있다. 정치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리더쉽이 바뀌는 경우이다. 이 때 실제 경제 상황이나 기업이익이 바뀌기 전에 새로운 리더쉽에 의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므로, 매우 빠르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림 12] 인도 ETF



자료: Stockcharts.com, 한국투자증권

새 경제팀의 내수 부양정책이 발표되면서 한국 증시도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것도 정치 변화에 의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다른 국가에서 그랬듯이 정치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때 빠르고 가파른 경우가 많아 시장에 거꾸로 베팅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다. 당사 전략팀에서는 건설, 금융, 배당 theme 등 국내 정책 변수에 수혜를 받는 업종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그 동안 글로벌 시장에 뒤쳐졌던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증시의 강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기업이익 사이클이 여전히 하향 조정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정도로 구조조정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게 반영되고 있지만, 아직 중국 은행주의 부실 자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추세적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차익 실현 부담으로 주요 이머징 동반 하락

- ▶ 상해종합지수는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기대 지속과 최근 랠리 부담 등으로 약보합세 마감
- ▶ 홍콩H지수는 최근 급등에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본토 증시 약세의 영향으로 소폭 반락
- ▶ 자카르타종합지수는 Idul Fitri 기념일로 7월28일 ~ 8월 1일 5일간 휴장. 8월 4일 개장 예정
- ▶ VN지수는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차익 부담, 정치 불안으로 반락

상해종합지수 소폭 반락
은행, 비철금속, 부동산, 금
융신탁 등 약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0.1% 소폭 반락해 7거래일 만에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약세로 출발 후 장중 2,200선 근처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거래대금은 1,496억위안으로 전날보다 100억위안 줄었다. 중앙정치국회의에서 18기 4중전회 개최시간을 확정했고 하반기에 안정적인 성장확보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해 정책 기대감이 계속됐다. 국가개발은행이 판자촌 건설을 위한 대출자금을 4천억위안 마련했다는 루머도 호재였다. 다만 연일 급등에 따른 부담감에 은행(-0.8%), 비철금속(-0.8%), 부동산(-0.7%), 금융신탁(-0.3%) 등이 하락하며 지수약세를 주도했다. 31일에 3개 공모주 상장후 2주간 IPO가 부재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차스닥지수가 0.8% 올랐다. 업종별로는 석탄가스(5.0%), 채굴서비스(4.3%), 철강(2.4%), 석유(1.6%), 요식업(1.5%), 통신서비스(1.4%), 제약(1.0%) 등이 강세였다.

홍콩H지수 소폭 반락
전력, 증권, 보험, 제약, 석
탄 등 약세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0.03% 하락해 8거래일 만에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중국경기 반등과 증시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감에 글로벌자금 유입세가 이어졌다. 7월이후 홍콩금감원은 총 17차례에 걸쳐 환율시장에 개입하면서 누적 578억홍콩달러의 자금을 투입했다. 오전장에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 지수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본토증시 약세의 영향을 받아 오후장에 약보합세로 전환했다. 7월 30일 아르헨티나 국가채무 디폴트 가능성도 부담요인이 됐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석유, 건설, 은행 등이 강세였던 반면에 전력, 증권, 보험, 제약, 석탄 등은 하락세로 마감했다.

■ 인도네시아 시장

Idul Fitri 기념일로 7월28일 ~ 8월 1일 5일간 휴장. 8월 4일 개장 예정

■ 베트남 시장

VN지수 590선 하회
음식료, 유제품, 보험, 은행
등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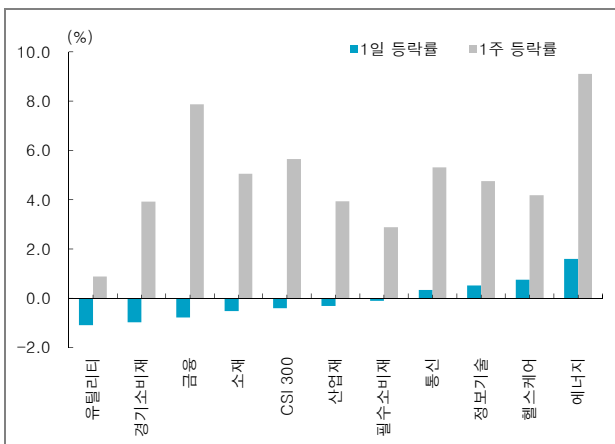
VN지수는 하루 만에 0.5% 반락하며 직전일의 상승 분을 모두 반납했다. 하락 출발하며 장중 무디스가 베트남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상승 반전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가 다시 약세로 전환했다. 일부 은행 및 대형 기업들의 최고 경영진이 국가 규제 위반으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밝히면서 정치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식료, 유제품, 보험 등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뉴스

시장 구분	주요 내용
중국	IMF, 현재 위안화 통화가치 5~10% 평가절하돼 있어 중앙정치국회의, 오는 10월에 18기 4중전회 개최 결정, 전면적인 법치건설 강조됨 무디스, 부동산경기 부진에 따른 경기하강 압력통제 가능범위, 정책여력 남아있어
태국	6월 산업생산 증가율 -6.6% (5월 -4.1%)
태국	6월 설비가동률 60.6 (5월 61.4)
인도	정부,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 5.5% 달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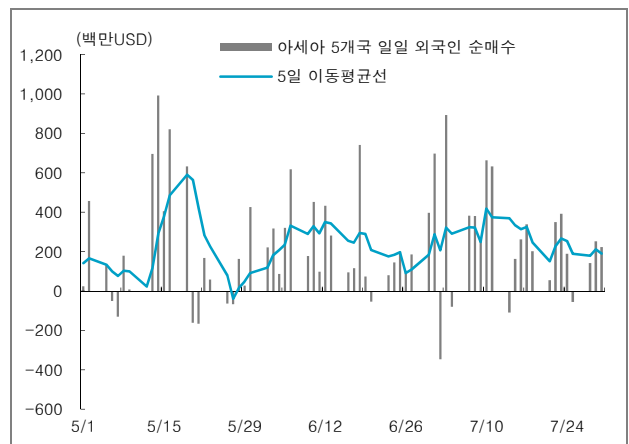
◆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그림 1] 중국 CSI300 업종별 등락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아세아 5개국*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개국의 달러자금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7/30(수)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181.24	-0.09	4.94	6.49	3.08
홍콩 H	11,119.32	-0.03	2.76	7.59	2.80
중국 차스닥	1,342.74	0.82	3.84	-4.41	2.94
인도 SENSEX	26,046.12	0.21	0.08	2.49	23.03
인도네시아 JCI	5,088.80	휴장	0.04	4.31	19.06
태국 SET	1,517.37	-0.21	-1.57	2.13	16.84
베트남 VN	589.33	-0.49	-1.37	1.94	16.78
MSCI 이머징마켓	1,080.54	0.12	0.26	2.83	7.76

주: 30일 오후 6시 기준

시장 동향과 특징주

대형주 강세를 중심으로 코스피는 2,080P선 돌파에 성공한 반면 코스닥은 사흘 연속 하락

- 미국증시는 주택지표와 소비자신뢰지수가 엇갈린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의 러시아 추가 제재안 발표로 지정학적 우려가 고조되며 일제히 하락 마감.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의 차익실현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일 상승을 주도하며 장중 2,090P선을 돌파, 연중 최고치를 재경신했으나, 장 막판 상승폭을 다소 줄이며 2,082P로 마감.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하락반전해 장중 540P선을 이탈하기도 했으나, 하락폭을 다소 줄이며 541P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등 증시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박스권 돌파 및 증시 활황 기대감에 증권주의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2분기 실적 호조 및 해외시장에서의 매출 증가 소식에 모나미가 견조한 오름세를 보임. 다음은 2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와의 합병 및 카카오의 결제 서비스 기대감에 소식에 8% 이상 급등, 결제 제휴를 맺은 삼성카드도 7% 가까이 강세를 보이며 신고가를 경신. 반면, KG이니시스를 비롯한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은 급락세를 보였으며,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자회사 보해B&H와 보해통상을 흡수합병한다고 밝힌 보해양조는 하한가를, 100억원 규모의 BW 사채권이 조기상환 청구됐다는 소식에 씨유메디칼이 12% 이상 급락세를 보임

종목/이슈	내 용
다음(035720) ▶130,800(+8.01%)	카카오 결제 서비스 기대감에 급등세 - 카카오가 오는 9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LG CNS의 '앰페이'를 인증수단으로 도입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급등세 - 동사의 2분기 실적은 부진했으나 카카오와의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
모나미(005360) ▶3,000(+5.45%)	2분기 흑자전환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 2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 감소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0억4,900만원, 7,800만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 동사의 제품 '왕자파스'가 터키에서 70%를 웃도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불펜 153의 한 정판과 프리미엄 라인 '153D'가 출시 후 큰 인기를 얻으며 매출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
증권주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며 강세 -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등으로 코스피가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연일 연중 최고치 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증시 활황 기대감에 강세 - 동부증권(016610, +10.55%), 현대증권(003450, +5.79%), 유진투자증권(001200, +5.78%), 한화투자증권(003530), HMC투자증권(001500, +4.65%) 등 강세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삼성카드(029780) ▶47,650(+6.72%)	- 카카오와 9월 중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휴한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아울러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33.12%, 180.88% 증가하는 등 실적 호조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
ISC(095340) ▶29,100(+13.67%)	- 해외 고객사로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38.5%, 33.3% 증가하는 등 실적 호조 소식 전망에 신고가 경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에스원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에스원 (012750)	77,000 (+5.9)	72,700 (07/25)	- 건물관리사업 양수와 시스템경비 가입자수 증가, 보안상품 판매 성장으로 향후 3년간 매출액과 순이익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4%, 28% 예상 - 주력 사업부인 보안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ESCO(Energy Service Company), 헬스케어 등 다양한 신규사업의 확장성을 주목할 필요 - 삼성 에버랜드로부터의 건물사업 양수를 통한 외형 확대와 건물 에너지 관리(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사업과의 시너지 기대
솔루에타 (154040)	26,800 (+0.0)	26,800 (07/09)	- 삼성전자 갤럭시S5 판매 부진, 애플 아이폰6향 수주 지연, 기저효과 등으로 2분기 실적 둔화가 예상되나 애플향 공급물량 증가로 3분기 실적 회복 전망 - 차폐 테이프 시장의 높은 성장성, 다변화된 거래처와 수직 계열화,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 성장 기대는 유효 - 여타 IT부품주들 대비 차별화된 성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할 때 저평가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GS홈쇼핑 (028150)	274,900 (+17.0)	234,900 (06/26)	- 소비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쇼핑 확대, 상품Mix 전환 등으로 2분기 안정적인 실적 유지 - 해외법인의 적자폭이 감소하는 가운데 하반기 소비경기 회복 시 성장 잠재력 재부각 가능성 - 보유현금(2014F 순현금 8,290억원)을 감안한 EV/EBITDA는 4.0배에 불과해, 여타 경쟁회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도 내재
엔씨소프트 (036570)	155,000 (-8.0)	168,500 (06/02)	- 2분기부터 길드워2 중국, 와일드스타 북미/유럽, 블레이드앤소울 일본과 리니지1 매출 회복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될 전망 - 금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블레이드앤소울 TCG 등 모바일 게임과 내년 4분기 상용화가 예상되는 리니지 이터널도 한국과 중국에서 흥행 예상 - 성장성 대비 저평가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뷰웍스 (100120)	29,500 (+3.9)	28,400 (06/02)	- FP-DR(Flat Panel Digital Radiography, X-Ray 촬영시스템의 핵심 부품)과 산업용카메라의 고성장세 지속 - 영상장비 및 솔루션 분야의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객 및 제품 다변화로 중장기 성장 잠재력 강화 - 고성장/고마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X-Ray시스템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성장 프리미엄 향유 가능성 상존
영원무역홀딩스 (009970)	79,000 (+10.5)	71,500 (05/26)	- 자회사인 영원무역(지분율 50.2%)의 경우 선진국 경기 회복, 신규 바이어 증가, 증설효과 본격화로 두 자리수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으며, 영원아웃도어(지분율 59%)는 국내 1위 아웃도어 업체로써 안정적인 성장과 공격적인 재고자산 처분으로 수익성 회복 예상 - 자전거 유통 및 의류 사업을 주로 하는 스캇노스아시아(지분율 60%), 의류 및 신발 생산업체인 방글라데시 KEPZ(지분율 100%) 등도 주목할 필요. 현재 시가총액은 영원무역의 지분 가치만을 반영한 상태로 저평가 가치주로서의 매력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엔씨소프트, GS홈쇼핑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파트론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4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파트론 (091700)	10,900 (-1.8)	11,100 (07/08)	977	119	101	1,866	5.8
3분기부터 주요 고객사향 후방 카메라모듈 비중 증가 등 제품믹스 개선으로 영업이익률 12%대 회복 예상 - 센서 모듈사업 등 고마진 신사업 매출 본격화로 기존 제품 성장을 둔화에 따른 리스크 희석 예상 2분기 실적 부진보다는 신사업의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매력을 주목할 필요							
제일기획 (030000)	21,300 (-2.7)	21,900 (06/26)	3,228	162	126	1,096	19.4
- 국내 광고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에서의 선전으로 양호한 실적 흐름 지속 예상 - 중국 광고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삼성전자의 신중국 마케팅 확대, M&A를 통한 광고 대행 능력 강화, 비계열사 광고주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성장성 대비 저평가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NAVER (035420)	769,000 (-2.3)	787,000 (06/23)	2,725	791	575	19,289	39.9
- 라인 가입자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익 모델 다변화로 라인 매출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 -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서비스와 수익모델 도입이 가능하고 유행에 덜 민감한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라인은 여타 글로벌 SNS업체들 대비 상대적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폐쇄형 SNS인 밴드(BAND)도 글로벌 가입자 증가와 모바일 게임 출시로 성장 기대							
삼성SDI (006400)	159,500 (+4.6)	152,500 (03/14)	5,038	136	310	6,896	23.1
- BMW의 신제품 출시 및 Global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용 2차전지 부문의 고성장 기대 유효 - 소형 전지는 Mobile 신제품 출시 및 Tablet PC 출하량 증가에 따른 제품믹스 조정으로 수익성 개선 예상 2차전지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실적 턴어라운드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PBR 0.9배) 재부각 가능성 상존							
삼성전자 (005930)	1,395,000 (+7.2)	1,301,050 (02/17)	223,332	34,356	29,059	192,471	7.2
- 성장세 둔화와 함께 업체간 경쟁 격화에도 불구하고, 강한 시장 지배력과 기술 경쟁력, 마케팅 능력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부문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 -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할 때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SK텔레콤 (017670)	259,500 (+14.1)	227,500 (01/15)	17,800	1,939	1,728	24,364	10.7
-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과 마케팅비용은 감소로 수익성 호전 추세 지속 - 무제한 데이터 가입자, 특화 요금제 가입자 증가로 2014년에도 ARPU 증가 예상 - SK브로드밴드와 SK하이닉스 등 자회사 실적 호전, 설비투자 감소로 인한 가용현금흐름(free cash flow)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주주이익 환원 정책 강화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텔레콤, 삼성전자, 삼성SDI, NAVER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기업은행(024110)

매수(유지)

목표가: 20,000원(상향)

종가(7/29): 14,900원

작년에 이탈했던 1조원 순이익 클럽에 다시 가입할 전망

■ What's new : 2분기 깜짝 실적 발표, 연간 순이익 전망 10% 상향

연결기준 2분기 (제조업 매출에 해당하는) 총영업이익 1.2조원, 영업이익 3,790억원, 지배주주순이익 2,912억원을 발표했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16.1%, 44.5%, 39.5%씩 증가했다. 순이익은 우리 전망보다 약 50%나 많았다. 이자이익이 증가세가 완연해지며 NIM도 전분기에 비해 상승했다. 대손비용 안정과 함께 판관비도 강하게 통제 중이다. 총자산과 대출채권은 지난 1년간 4.9%, 6.3% 증가했다. 연초대비 대출은 3.3% 성장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대출 수요가 견고하게 살아있는 가운데, 바뀐 행장의 효율 위주 경영 방침은 마진 하락 우려를 덜 것이다. 연간순이익 전망을 12% 상향한다. 하반기 이익 전망은 3% 상향한 것이다. 2012년 이후 1조원 순이익 클럽 재진입을 예상한다.

■ Positives : 성장, 마진 그리고 판관비 통제 등 모두 양호하게 전개 중

(1)중소기업 중심의 대출수요가 견고함을 확인했다. 은행대출은 147조원으로 연초대비 3.3% 성장했다. 이 중 7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출이 3.9% 성장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제조업이 63%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부동산임대/건설은 9.6%에 불과하다. (2)NIM은 2분기 중 1.96%로 전분기 대비 4bp(전년동기대비 4bp)개선되었다. 고금리 회사채 만기로 인해 조달금리하락이 대출금리 하락 속도를 앞지르기 때문이다. 2분기 중 NIS는 1.87%로 전분기대비 4bp 확대되었는데, 평균 대출금리는 4.16%로 4bp 하락했지만 평균 조달금리는 2.29%로 8bp하락했다. (3)대손상각비도 우리 전망보다 소폭 적었다.

■ Negatives : 상대적 고배당 매력 하락 하겠지만, 주가 배수 상승으로 상쇄 가능

(1)자산건전성이 소폭 악화되었다. 고정이자여신비율이 1.51%로 5bp(QoQ) 상승했는데, PF사업장 2건 여신(금액 2,679억원)의 건전성을 '요주의'에서 '회수의문'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2)판관비 증가, 비이자이익 부진 등 영향으로 전기대비 순이익은 감소했다. (3)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이전과 크게 다르다. 덕분에 시중은행들의 배당성향 상향 가능성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 결론 : ROE 8.5%, PBR x0.67, 기대배당수익률 3%. PBR 1.0배 부근 도달 가능

우리가 올해 예상하는 배당성향은 전년과 같은 연결기준 29%, 주당 460원이다. 전일 종가 기준 기대배당수익률은 3.1%로 당사 은행 유니버스 중에서 가장 높다. 한편, 올해와 내년에 대해 예상하는 ROE는 평균 8.4%이다. 목표가격을 20,000원으로 18% 상향한다. 최근 분기 조정BPS 21,202원에 0.94배의 목표 PBR을 적용했다. 목표 배수 결정에 사용한 ROE, 자본비용, 성장률 가정 조합은 각각 8.5%, 9.1%, 0%이다.

(단위: 십억원, %, %p)

	2Q14P				증감률		2014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순이자이익	1,074.6	1,114.1	3.7	1,110.1	3.1	5.8	4,491.3	4,495.6
총영업이익	544.4	639.0	17.4	625.7	(10.4)	28.7	2,580.2	2,571.5
금융자산 손상차손	286.9	282.9	(1.4)	283.2	1.5	23.3	1,168.0	1,233.7
세전이익	257.5	377.0	46.4	319.3	(13.3)	41.2	1,433.2	1,361.8
지배주주 지분 순이익	193.9	291.2	50.2	234.9	(10.6)	39.5	1,084.2	1,015.5

*상기 보고서는 2014년 7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다음(035720)

중립(유지)

종가(7/29): 121,100원

방향이 맞더라도 속도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

■ What's new :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수준

2분기 매출액은 1,38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66억원으로 30.2% 감소했다. 컨센서스(매출액 1,372억원, 영업이익 171억원) 수준이나 당사 추정치대비로는 영업이익은 16.6% 하회했다. 검색광고와 디스플레이광고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5%, 12.1% 증가했으나, 게임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8.8% 감소했다. 컨퍼런스콜에서 카카오와의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다음의 검색 등 서비스와 콘텐츠를 카카오톡 등 카카오의 모바일 및 PC 서비스들과 연결해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14년 영업이익률은 내수 경기 부진과 게임 상용화 일정 지연 등으로 외형 성장이 기대에 못 미쳐 연초 제시했던 가이드(전년 수준) 대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Positives : 모바일 광고 매출 성장, 플래닛사이드2 인기

2분기에 진행한 다음 모바일 앱의 전면적인 개편 등으로 트래픽이 대폭 증가하는 등 성과가 좋았다고 언급했다. 2분기 모바일 광고 매출 비중은 검색광고, 디스플레이광고 각각 10%, 20%중반 수준이었다. 3분기에 아담(Ad@m)의 모바일 광고상품을 다양화하고 전면형 광고를 노출해 수익화(Monetization)을 강화할 계획이다. 6월 18일 OBT(공개서비스)를 시작한 MMOFPS(다중접속 1인칭 슈팅게임)인 '플래닛사이드2'가 7월 현재 PC방 점유율 20위권을 유지하는 등 초기 흥행에 성공해 3분기부터 실적에 기여할 전망이다.

■ Negatives : 수수료, 외주가공비 등 영업비용 증가로 영업이익률 하락

2분기 영업이익률이 12.0%로 전년동기대비 6.0%p 하락했다. 영업비용은 1,22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5%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급수수료와 광고대행수수료가 각각 25.4%, 8.6% 늘었는데, 네트워크 광고 매출 확대에 따른 TAC(Traffic Acquisition Cost) 증가가 주요인이다. 2분기 외주가공비도 전년동기대비 52.0% 증가했는데, 브라질 월드컵 중계권료 등 스포츠 콘텐츠 수급 비용 때문이다.

■ 결론 : 시너지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일정을 확인하고 투자하길 권함

다음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7월 29일 주가 121,100원 기준 다음과 카카오 합병법인의 시가총액(스톡 옵션 포함)은 7.4조원이다. 우리는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이 국내 1위의 모바일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다음의 서비스, 콘텐츠, 광고 플랫폼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커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통한 수익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시너지 효과와 성장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합병 발표 후 주가 급등으로 상당부분 선반영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일정 등을 확인하고 투자 판단을 하길 권한다.

(단위: 십억원, %, %p)

	2Q14P			컨센서스	증감률		2014F	
	추정	실적	차이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38	139	0.4	137	9.3	4.8	547	560
영업이익	20	17	(16.6)	17	9.5	(30.2)	64	71
영업이익률	14.4	12.0	(2.4)	12.5	0.0	(6.0)	11.8	12.8
세전이익	20	18	(10.4)	18	56.2	(17.5)	63	70
순이익	16	14	(13.4)	14	50.8	(23.1)	46	55

*상기 보고서는 2014년 7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삼성전기(009150)

중립(유지)

종가(7/29): 62,200원

본격적 실적 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

■ What's new :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

2분기 삼성전기의 매출액은 전분기대비 8% 증가한 1.86조원, 영업이익은 212억원을 기록했다. 시장 컨센서스(500억원)와 당사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1) 원/달러와 원/엔의 하락, 2)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출하대수 부진, 3) 애플향 AP의 제조가 삼성전자에서 TSMC로의 이전, 4) 신규 제품들의 매출발생 지연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 Positives :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로 부품 공급 시작, 베트남 공장을 통한 원가 절감

2분기부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로 카메라모듈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위주의 판매에서 고객 다변화가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베트남 공장이 올해 연말부터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어 동사의 원가 구조가 한 단계 개선될 전망이다.

■ Negatives : 당분간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문에는 리스크 요인이 존재할 전망

3분기에는 신규 저가 스마트폰의 모델 출시와 갤럭시노트4의 출시 등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대수는 전분기대비 8%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머징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 상승과 대면적 디스플레이를 보유한 아이폰6의 출시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문에는 리스크 요인이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화 강세와 더불어 엔화 약세까지 나타나고 있어 일본 경쟁업체들의 점유율이 당분간 상승할 전망이고 동사가 기대했던 터치패널과 무선충전 매출액 발생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 3분기에 영업이익이 365억원으로 회복할 전망이지만 연간 영업이익은 79% 감소 전망

3분기 매출액은 전분기대비 5% 증가할 전망이고 영업이익도 회복한 365억원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출하대수 증가와 신규 제품인 솔루션 MLCC, EMC, ESL의 오더가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사의 Cash cow인 FC-CSP 부문도 수율과 점유율의 개선으로 하반기에는 실적이 회복될 전망이다. 하지만 동사의 2014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9% 대폭 감소한 971억원으로 전망되어 현재 시점에서 실적모멘텀은 낮다고 판단된다.

■ PBR 1.1배로 하락하여 주가 하방경직성은 확보했지만 주가 회복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

2014년말 기준으로 동사의 주가는 PBR 1.1배로 하락하여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를 장부가치가 아닌 시장가치로 환산할 경우 PBR은 더욱 하락한 1.0배).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동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해소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2Q14P				증감률		2014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080	1,861	(10.5)	1,900	7.6	(22.0)	7,417	7,573
영업이익	115	21	(81.5)	50	40.5	(90.5)	97	215
영업이익률	5.5	1.1		2.6			1.3	2.8
세전이익	109	29	(73.1)	49	262.7	(86.7)	89	200
순이익	76	17	(77.2)	41	737.3	(91.6)	62	137

*상기 보고서는 2014년 7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유한양행(000100)

매수(유지)

목표가: 245,000원(유지)

종가(7/29): 177,000원

2014년 수익성 개선 자신감 회복

■ What's new : 1분기 실적둔화에서 회복, 재산세 납부 선반영 효과 제외하면 더 좋아

유한양행은 1분기 실적둔화에서 벗어나 견고한 2분기 실적을 시현했다. 매출은 2,542억원(7.8% YoY), 영업이익은 161억원(44.9% YoY, OPM 6.3%)을 시현했다. 영업이익은 기대치를 하회하는 것처럼 보이나, 정부의 재산세 납부시기 조정(3Q → 2Q)으로 14억원(매출대비 0.6%)의 재산세가 2분기에 선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치이다.

■ Positives : 마케팅 비용 안정화와 API 수출 강세로 마진개선, 하반기 개선 확대

2014년 수익성 개선의 근거는 1) 국내 신규 품목도입 제품의 마케팅 비용안정화와 2) 고마진 API(원료의약품) 수출 확대이다. 이번 실적을 통해 두 가지 성장 동력이 유효함을 확인했다. 사업별로 보면 주요 4개 품목도입 제품(전문의약품 매출 43%)의 매출(654억원, 30.9% YoY)이 고성장세를 지속했다. 한편 전분기에 매출증가율이 둔화되었던 API 수출(415억원, 28.1% YoY)도 C형 간염치료제 매출 증가로 성장세를 회복했다. 3분기부터 고객사의 C형 간염복합제가 미국에서 허가를 받으면 원료의약품 수출규모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므로 전체 수익성 개선(OPM 상반기 6.3% vs. 하반기 7.7%)이 가속화될 것이다.

■ Negatives : 유한 김벌리 실적 부진, 외형은 소폭 회복했으나 이익 감소

유한김벌리 실적은 여전히 부진했다. 국내 매출 성장개선(4.7% YoY) 개선으로 전체 매출(3,477억원, 0.6% YoY)은 1분기 역성장에서 탈피했으나 대신 영업이익(420억원, -9.5% YoY)이 감소했다. 원가율은 변동이 없었으나, 전년 2분기 펄프가격 안정화와 여성위생용품 가격 인상에 따른 높은 영업이익 기저효과도 일부 있었고, 인건비 일부 증가도 영업이익 감소에 기여했다. 1분기와 마찬가지로 중국사업은 중국 할인점 시장 위축으로 전년대비 역성장(-33.8% YoY)을 지속했다. 다행히 기타 해외수출(205억원, 58.9% YoY)은 강세를 보였다. 2014년 큰 폭의 실적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2014년에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에 만족하고, 2015년 티슈 공장 증설에 따른 매출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

■ 결론 : 실적 개선 우려 해소, 하반기 이익 개선 가속화와 valuation 매력 커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1분기 실적이 한동안 주가조정의 빌미로 작용했었는데 다행히 2분기 실적을 통해 2014년 수익성 개선 전망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2014년부터 품목도입 제품의 매출 확대와 고마진 API 수출 확대를 바탕으로 한 양적 성장이 수익성 개선으로 진화하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음을 재확인했다. 1) valuation 매력과 2) 하반기 수익성 개선 가속화를 감안하여 투자자의 '매수', 목표주가 245,000원(2014년 내재 PER 22배)을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2Q14P				증감률		2014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56	255	(0.4)	257	12.7	7.8	1,041	1,026
영업이익	17	16	(3.1)	17	14.7	44.9	74	72
영업이익률	6.5	6.3		6.5			7.1	7.1
세전이익*	24	19	(21.8)	21	(51.1)	12.0	87	121
순이익	19	13	(29.3)	17	(55.8)	11.7	69	96

주: *세전이익 증가율이 제한적인 이유는 1) 전년동기 투자자산 처분이익 관련 일회성 요인과 2) 2분기 외화환산손 발생 때문

*상기 보고서는 2014년 7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한국타이어(161390)

매수(유지)

목표가: 73,000원(유지)

종가(7/29): 59,400원

아직 끝나지 않은 싸이클

■ What's new: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하회

한국타이어의 2분기 연결 매출액은 1조 6,615억원으로(QoQ -0.8%, YoY -0.3%) 우리 전망치와 컨센서스에 각각 3.5%, 0.8% 미달했다. 영업이익은 2,512억원으로(QoQ -3.5%, YoY -7.4%, OPM 15.1%) 우리 전망치와 컨센서스에 각각 7.9%, 3.5% 부족했다. 2분기 판매량과 가격이 우리 예상보다 각각 1.6%, 1.9% 낮았고 투입원가는 1% 높았다.

■ Positives: 세컨브랜드 출시가 ASP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세컨브랜드(Second brand, sub-brand) 출시가 우려와 달리 ASP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산 저가 브랜드와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현재 "Hankook" 브랜드보다 한 단계 아래인 third tier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보다 글로벌 순위가 높은 타이어업체들은 2~11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시장상황에 맞게 유연한 영업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국타이어도 내년 초 세컨브랜드 출시를 통해 현재 단일브랜드 판매체계에서 오는 영업전략의 한계를 극복해 점유율을 회복할 전망이다.

■ Negatives: 유럽, 너마저……

그 동안 상대적으로 완화된 경쟁환경 속에서 M/S를 늘려나갔던 유럽시장도 선두업체들의 견제가 심해지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는 상반기 기준 8% 후반으로 빠르게 성장해온 유럽시장 점유율이 하반기에는 숨을 고른 후, 2015년 세컨브랜드 출시를 계기 삼아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 결론: 올해 매출 역성장은 주가에 이미 반영

한국타이어에 대해 목표주가 73,000원을 유지한다(12MF EPS에 global peer 평균 11배 적용). 본격적인 판매경쟁에 뛰어들어 판매비가 상승하고 있지만(매출액 대비 QoQ +1.9%p, YoY +2.4%p) 원가부담이 줄어들었고(COGS 비중 2Q14 64.2%, 2Q13 67.2%) 현금이 풍부하기 때문에(2Q14 1조 1,300억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기존에 우리가 전망했던 올해 매출액 역성장은 2분기 실적을 계기로 이미 시장 컨센서스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 하락 여지는 제한적이다. 우리는 타이어의 수요개선세가 최소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본다. 그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의 완만한 상승과 함께 타이어 주가의 강세가 한번 더 찾아올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타이어 2015년 성장에 다시 한번 주목하며 매수를 추천한다.

(단위: 십억원, %, %p)

	2Q14P				증감률		2014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721	1,662	(3.5)	1,675	(0.8)	(11.2)	6,804	6,990
영업이익	273	251	(7.9)	260	(3.5)	(7.4)	1,026	1,030
영업이익률	15.9	15.1	(0.7)	15.5	(0.4)	0.6	15.1	14.7
세전이익	267.9	236	(12.1)	-	(3.8)	(14.5)	1,008	-
순이익	208.9	161	(22.8)	196	(17.2)	(22.8)	767	765

*상기 보고서는 2014년 7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미포조선(010620)

매수(유지)

목표가: 170,000원(유지)

종가(7/29): 135,000원

지연된 터닝

■ What's new : 신선종 공기지연으로 예상치 크게 하회

영업손실 2,510억원으로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 1) 매출도 공정 지연으로 우리의 예상을 하회했고, 2) 원화 강세로 영업이익률은 0.5%p 이상 타격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3) 수익성 악화의 주범인 2012~2013년 초 수주한 PSV, Juice carrier, 고사양 PC선 건조 관련 공사손실 충당금이 크게 반영됐다.

■ Positives : 신종 선박, 대부분 인도 시작돼

지금까지 선표를 훼손한 선박은 [표 1]과 같이 약 7척이다. 대부분 수주 급감기인 2012년에 수주한 신선종으로 익숙하지 않은 선박이다 보니 공기가 지연됐고 연쇄적으로 타 선박의 공정에 영향을 미쳤다. 실적 쇼크 속에서 그나마 희망은 1) 7척의 선박이 이번 2분기 dock에서 다 나와 연내 모두 인도가 완료되며, 2) 2012~2013년 수주한 저가 선박에 대해 상당부분 충당금 반영을 완료했다는 점이다. 사측은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2분기가 실적의 바닥임에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3분기부터 공정이 정상화될 전망이므로 회복의 레벨이 문제겠으나 불확실성은 많이 제거됐다고 판단된다.

■ Negatives : 오른 선가의 수주가 필요

문제 선박은 인도되지만 올해 매출의 60%가 2012~2013년 상반기 선가 하락기에 수주한 물량이라 흑자전환 시점은 내년 1분기로 추정된다. 내년은 2013년 하반기부터 수주한 물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믹스가 개선된다. 턴어라운드의 속도와 레벨을 높이려면 오른 선가의 수주가 필요하다. 동사가 강한 LPG선과 PC선(Handy)에 대한 신조 문의는 꾸준한 것으로 파악되나 선별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어 회사가 요구하는 선가에 빠른 수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5년 손익의 레벨은 올 하반기 수주 선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결론 : 터닝은 지연됐지만 바닥은 peer 대비 빨리 찾을 전망

2분기 실적 부진을 감안해 2014년 영업손실을 기존 1,670억원에서 4,470억원으로 하향한다. 2015년 BPS에 PBR 1.1배를 적용해 산출하는 목표주가는 기존 대비 오차가 6%에 불과해 기존 목표주가를 유지한다. 예상대비 문제 선박의 공정 지연으로 터닝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 선박이 하반기부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며 도크의 효율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Big3 대비 해양의 불확실성에서 자유롭고 장기적으로는 니치마켓이던 LPG선이나 PC선 시장의 과점화를 누릴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2Q14P				증감률		2014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949	899	(5.2)	1,022	(6.8)	(5.3)	3,809	4,160
영업이익	(60)	(251)	317.6	(65)	적합	적합	(447)	(188)
영업이익률	(6.3)	(27.9)	-21.5pt	(6.4)	-19.5pt	-21.5pt	(11.7)	(4.5)
세전이익	(60)	(264)	339.4	(65)	적합	적합	(466)	(167)
순이익	(43)	(199)	363.3	(44)	적합	적합	(342)	(115)

*상기 보고서는 2014년 7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중공업(009540)

중립(유지)

종가(7/29): 168,500원

바닥 가늠이 힘들다

■ What's new : 사상 최대 분기 적자

2분기 영업손실 1.1조원으로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사상 최대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연결자회사인 현대미포와 현대 삼호중공업의 영업적자가 약 3,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조선과 해양, 플랜트 사업부에서 약 1.2조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오일뱅크 영업이익도 전분기 990억원에서 이번 분기 절반 수준까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 Positives : 일부 해양 프로젝트의 change order 가능성 남아

해양 손실의 대부분은 2010년 수주한 노르웨이 '골리앗' FPSO와 2009년 수주한 호주 '고르곤'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충당금이 대거 반영됐다. 골리앗은 당초 11억달러의 수주에서 시작했으나 설계변경과 change order로 20억달러까지 증액된 상태다. 내년 상반기 두 프로젝트의 인도를 예상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비용 반영보다 change order 협상에 따른 upside는 남아있다.

■ Negatives : 저가 상선의 최대 소화, 새롭게 떠오른 육상플랜트 리스크

조선부문 영업손실 중 약 1,500억원이 2012년 수주한 semi-rig선 2척에서 발생했다. 선가도 낮았지만 노르웨이 산업표준에 맞추기 위해 표면상태를 깎는 난이도 높은 공정으로 예상보다 비용 투입이 늘고 지체보상금(LD)가 발생했다. 한편 육상플랜트에서 상세설계가 끝나고 15% 이상 공정률에 진입한 사우디 '제다' 발전과 2013년 수주한 '슈케이크' 발전의 대손충당금이 약 2천억원 반영됐다. 당초 제다 발전의 2위와의 가격차가 4억달러 가량 발생했고 건설사들 대부분 작년 하반기에 겪은 사우디 인건비 상승 영향이다. 현지 인력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완공될 때까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결론 : 2015년 상반기는 되어서 방향성 가늠이 가능할 전망

예상을 넘은 2분기 영업손실을 반영해 2014년 영업손실을 기존 4,430억원에서 1조 4,600억원으로 하향한다. PBR 0.7배지만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추가적인 BPS의 감액 가능성이 너무 높다. 2분기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에 하반기 적자폭은 크게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1) 해양 프로젝트의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설사 향후 change order가 유입된다 할지라도), 2) 주요 저수익 플랜트 현장인 '제다'와 '슈케이크'의 완공이 2017, 2018년이라는 점에서 흑자전환 시기를 가늠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좋은 물량을 수주함으로써 제품 믹스가 개선돼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시황에서는 그마저도 기대가 어렵다. 당분간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2Q14P				증감률		2014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2,123	12,812	5.7	13,507	(5.2)	(2.1)	52,927	55,272
영업이익	(124)	(1,104)	790.1	(37)	적확	적전	(1,460)	(46)
영업이익률	(1.0)	(8.6)	-7.6pt	(0.3)	-7.2pt	-10.8pt	(2.8)	(0.1)
세전이익	(309)	(947)	206.4	(121)	적확	적전	(1,338)	(223)
순이익	(211)	(489)	131.8	(68)	적확	적전	(954)	(133)

*상기 보고서는 2014년 7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GS홈쇼핑(028150)

매수(유지)

목표가: 340,000원(유지)

종가(7/29): 271,000원

예상 수준의 실적, 하반기 개선 전망

■ What's new : 2분기 영업이익 360억원, 전년동기 수준

GS홈쇼핑의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와 우리의 추정치에 부합했다.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366억원과 유사한 360억원(-1.6% YoY)을 기록했으며, 지배주주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6% 감소한 293억원이었다. 별도기준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8% 늘어난 380억원이었다. 취급고증가율 1.6%와 유사하다. 부문별 취급고는 1분기와 유사하게 TV쇼핑 부문이 전년동기대비 2% 감소했으며, 모바일쇼핑은 전년동기대비 198%, 전분기대비 29% 증가했다. 인터넷 쇼핑은 30% 줄어 들었고, 카탈로그와 기타 부문의 취급고도 감소했다.

■ Positives : 예상을 상회하는 모바일쇼핑, 의류매출 비중 확대

2분기 모바일쇼핑 취급고 규모는 1,600억원을 넘어섰다. 연초 시장의 우려와 달리 여전히 매분기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폭도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 동시에 의류매출 비중도 전년동기 24%에서 30%로 확대되었으며, 소매시장 전체의 의류판매가 줄어드는 추세와 사뭇 다르다. 소비트렌드에 맞춘 효과적인 MD구성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며, 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GS홈쇼핑의 실적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바일쇼핑이 전체 실적을 견인하면서 케이블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중기적으로는 비용부담 감소에 따른 이익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 Negatives : 이익 정체, 그러나 하반기 개선 전망

2분기 실적은 업종 내 상대우위의 실적은 분명하지만, 이익 정체는 아쉽다. 다만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며, TV쇼핑 부문의 외형성장도 점진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쇼호스트 교체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6월말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공격적인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쇼핑 부문의 이익률이 유지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 결론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40,000원 유지

소비경기 회복에 가장 민감한 외형성장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하반기 영업이익은 상승 추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MD경쟁력 강화에 따른 중장기 성장성도 업종 내 가장 높고, 해외사업부문의 손익도 점진적인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GS홈쇼핑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40,000원을 유지한다. 현재 주가는 12MF PER 11.9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주가는 12MF PER 14.9배에 해당한다.

	2Q14P				증감률		2014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66	263	(1.1)	273	3.0	(0.9)	1,101	1,098
영업이익	38	36	(4.7)	38	(2.8)	(1.6)	167	162
영업이익률	14.2	13.7	(0.5)	14.0	(0.8)	(0.1)	15.2	14.7
세전이익	42	39	(5.9)	43	(3.1)	(5.0)	182	178
순이익	31	29	(6.6)	32	(3.8)	(5.8)	134	133

*상기 보고서는 2014년 7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KT(030200)

매수(유지)

목표가: 38,700원(유지)

종가(7/29): 31,300원

무선통신 경쟁력 회복, 구조조정 효과로 수익성 개선

■ What's new : 2분기 수익성은 예상 수준, 1분기 대비 개선

2분기 영업실적은 우리의 추정치와 시장 예상치 수준이었다. 영업손실이 8,130억원으로 우리의 추정치(9,053억원 손실)보다 적은 것은 1조 2,537조원의 명예퇴직금 중 1조 527억원이 비용으로 반영되고 2,010억원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처리됐기 때문이다. 2분기 서비스 매출액(단말기 제외)은 이동통신 및 IPTV 가입자 증가로 전분기 대비 2.7% 늘었다. 영업이익은 일회적인 명예퇴직금 1조 527억원 반영(4월 말 8,356명 명예퇴직)으로 8,130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또한 출고가 인하 과정에서 제조사의 단말기 장려금 지급이 3분기로 미루어져 단말기 판매이익이 1분기 543억 원에서 2분기에는 189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명예퇴직금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2,397억원으로 1분기 대비 57.6% 증가해 수익성이 개선됐다.

■ Positives : 15년 영업이익은 구조조정 효과로 65% 증가 예상

2분기에 이동통신과 IPTV는 가입자수가 각각 30만명(+1.8% QoQ), 21만명(+4.0% QoQ) 늘어 성장성이 이어졌다. 무선통신, 미디어, 렌탈, 금융수익이 늘어 전화매출 감소(104억원)를 만회했다. LTE 무제한 데이터 가입자가 늘면서 이동통신 가입자당 매출액(ARPU)은 전분기 대비 2.2% 늘었으며 연간으로는 6.1% 증가할 전망이다. 4월 명예퇴직의 비용절감 효과(연간 5천억원), 자회사 구조조정 효과 등으로 수익이 호전될 것이다. 하반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48.4% 증가하고 2015년에는 1조 3,584억원으로 2014년 조정 영업이익(명예퇴직금 제외) 대비 65.1% 증가할 전망이다.

■ Negatives : 순차입금이 10.8조원으로 증가

자회사 인수와 명예퇴직금 지급 등으로 순차입금이 2010년 8.2조원에서 2014년 6월에 10.8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순차입금/자본 비율도 72.4%에서 91.2%로 높아졌다. KT는 현재 KT렌탈과 KT캐피탈 매각을 추진 중인데 매각이 완료되면 순차입금은 7조원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 결론 :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38,700원 유지

KT에 대한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38,7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15년 EBITDA에 목표 EV/EBITDA 4.0배(과거 3년 평균을 1.3% 할증)를 적용해 산출했다.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와 점유율 회복, 인력 구조조정 및 자회사 매각에 따른 3분기 이후 수익 호전이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도 수익 호전 요인이다. 14년 배당은 어려울 전망이나 이미 노출된 변수다.

(단위: 십억원, %, %p)

	2Q14P				증감률		2014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6,002.9	5,895.5	(1.8)	5,890.2	0.8	2.4	23,702.3	23,756.5
영업이익	(905.3)	(813.0)	NM	(872.1)	NM	NM	(229.9)	(169.0)
영업이익률	(15.1)	(13.8)	1.3	(14.8)	(10.8)	(19.8)	(1.0)	(0.7)
세전이익	(960.4)	(992.6)	NM	(1,005.4)	NM	NM	(892.8)	(650.1)
순이익	(990.4)	(786.9)	NM	(904.3)	NM	NM	(757.7)	(697.1)

*상기 보고서는 2014년 7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만도(060980)

매수(유지)

목표가: 158,000원(유지)

종가(7/29): 130,000원

하반기 성장의 대가

■ What's new: 예상보다 큰 환율영향으로 컨센서스 하회

만도의 2분기 연결 매출액은 1조 4,124억원으로(QoQ flat, YoY -2.3%) 우리 전망치와 컨센서스를 8% 하회했다. 영업이익은 909억원으로(QoQ +6.6%, YoY +0.6%, OPM 6.4%) 우리 전망치와 컨센서스를 각각 5.8%, 5.0% 하회했다. 순이익도 475억원을 기록해(QoQ -25.4%, YoY -6.9%)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다(-28%). 예상보다 컸던 환율의 부정적 영향과 중국/미국의 공장라인 재정비로 매출이 부진했다(중국 YoY -4.7%, 미국 -18.3%).

■ Positives: 매출 감소는 하반기 성장을 위한 일회성

수익성이 견조했지만 중국과 미국의 매출감소가 뼈아프다. 현지통화 기준으로 봐도 2분기 중국과 미국 매출은 성장폭이 둔화됐다(중국 YoY +5%, 미국 -5%). 그러나 이는 하반기 성장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매출감소를 유발한 하얼빈공장의 물량감소는 하반기 선양공장 가동에(6월 완공) 따른 설비 재배치 작업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매출감소를 유발한 기아차 공장의 물량감소는 하반기 SUV 양산을 위한 라인 정비작업으로 7월 휴가를 6월로 앞당기면서 가동일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 Negatives: 환율에 취약한 사업구조

기준에 영업측면의 환율은 대부분 헛지가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실제로 2분기 실적을 보면 원/달러 환율 10원 하락에 약 17억원의 영업외손실이 발생했다(QoQ 평균 원/달러 환율 40원 하락).

■ 결론: 여전히 건재한 하반기 투자포인트

만도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58,000원을 유지한다(12MF EPS에 목표 PER 12배 적용). 현대기아차의 SUV 신차와 해외 신공장은(폴란드, 중국 선양) 여전히 건재한 하반기 투자포인트다. 폴란드는 폭스바겐 그룹 내 수주를 넓혀나갈 전망이다. 선양공장은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2015년 2,000억원의 매출이 전망된다(하얼빈 합산, 2013년 600억원). 하반기 성장을 위한 준비가 2분기에 다소 요란했지만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있다. 분할안건이 주총에서 통과된 현 시점에서 거래정지 전(8/28) 매수를 추천한다. 거래재개 후(10/6) 예상 합산시총이 현재보다 크고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를 모두 들고 가는 것이 시장 대응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단위: 십억원, %, %p)

	2Q14P				증감률		2014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532	1,412	(7.8)	1,534	(0.0)	(2.3)	5,837	6,027
영업이익	96	91	(5.8)	96	6.6	0.6	360	362
영업이익률	6.3	6.4	0.1	6.2	0.4	0.2	6.2	6.0
세전이익	78	72	-		(12.8)	8.6	290	-
순이익	61	48	(22.2)	66.1	(25.4)	(6.9)	216	247

*상기 보고서는 2014년 7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7/23(수)	7/24(목)	7/25(금)	7/28(월)	7/29(화)	7/30(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28.32	2,026.62	2,033.85	2,048.81	2,061.97	2,082.61
	등락폭		-0.61	-1.70	7.23	14.96	13.16	20.64
	등락종목	상승(상한)	437(6)	280(3)	480(5)	333(3)	278(2)	406(3)
		하락(하한)	400(1)	526(3)	321(0)	489(0)	538(0)	401(3)
	ADR		122.24	115.56	116.85	111.28	105.27	101.62
	이격도	10 일	100.77	100.57	100.70	101.17	101.57	102.24
		20 일	101.01	100.85	101.09	101.72	102.21	103.06
	투자심리		60	50	6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354	324	283	349	409	338
	거래대금	(십억 원)	4,258	4,637	4,013	4,671	6,010	6,426
코스닥	코스닥지수		563.14	559.67	562.78	552.98	541.82	541.81
	등락폭		-1.79	-3.47	3.11	-9.80	-11.16	-0.01
	등락종목	상승(상한)	437(7)	280(8)	480(6)	333(5)	278(4)	395(4)
		하락(하한)	400(1)	526(8)	321(3)	489(5)	538(3)	542(6)
	ADR		112.92	106.49	105.87	96.32	86.61	83.65
	이격도	10 일	100.55	99.92	100.36	98.77	97.07	97.31
		20 일	101.83	100.93	101.20	99.30	97.32	97.38
	투자심리		60	50	6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330	376	314	329	334	309
	거래대금	(십억 원)	1,897	2,040	1,842	1,979	2,021	1,915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594.3	2,157.0	1,640.7	374.1	367.4	346.1	138.1	45.8	369.322	65.2
	매도	3,169.9	1,558.6	1,653.8	330.8	209.8	526.3	118.5	73.4	395.1	74.9
	순매수	-575.6	598.5	-13.1	43.3	157.6	-180.2	19.6	-27.6	-25.8	-9.8
	7 월 누계	-1,243.3	3,548.2	-2,071.3	-43.0	294.6	-1,391.3	-117.8	-252.5	-561.2	-233.5
	14 년 누계	-1,149.0	5,787.0	-4,057.9	-3,161.3	1,048.2	-2,568.2	-360.6	-1,351.5	2,335.5	-580.1
코스닥	매수	1,674.2	128.9	111.4	18.0	17.9	27.2	10.8	3.9	33.6	18.1
	매도	1,598.2	140.3	169.2	34.4	28.8	47.0	11.5	4.7	42.8	24.9
	순매수	76.0	-11.4	-57.8	-16.4	-10.9	-19.9	-0.7	-0.8	-9.2	-6.8
	7 월 누계	205.8	116.8	26.0	-37.8	61.2	-64.0	-17.5	-0.7	84.9	-348.7
	14 년 누계	220.7	761.2	-135.3	-42.6	133.4	-298.2	-122.3	-8.2	202.6	-846.7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11,178
운수장비	-50,451
전기가스업	8,244
전기,전자	-44,357
증권	2,818
화학	-22,030
SK텔레콤	6,481
KINDEX200	-38,499
한국가스공사	4,756
삼성전자	-28,307
삼성물산	4,315
KODEX 200	-26,675
GKL	3,761
현대차	-14,571
현대해상	3,150
대우조선해양	-10,217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29,749
전기,전자	-21,785
은행	6,847
운수창고	-6,969
서비스업	6,479
건설업	-5,653
KT	16,459
KODEX 200	-89,611
현대모비스	15,197
삼성전자	-27,126
기아차	12,976
현대중공업	-20,734
SK텔레콤	11,710
삼성SDI	-10,047
NAVER	11,541
호텔신라	-7,859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3,581
철강및금속	-11,697
의약품	3,238
통신업	-6,130
전기,전자	713
운수장비	-5,366
유한양행	3,091
KODEX 레버리지	-23,171
현대중공업	2,922
POSCO	-11,108
우리금융	1,985
KODEX 200	-7,267
두산	1,770
KT	-5,062
NAVER	1,744
현대차	-4,240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38,047
기계	-6,606
통신업	29,597
음식료품	-3,343
금융업	19,599
의료정밀	0
KODEX 200	139,101
TIGER 200	-59,259
삼성전자	29,095
대우조선해양	-6,086
KT	20,883
한국전력	-4,428
기아차	13,445
SK	-4,245
KB금융	8,334
KODEX 인버스	-3,769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94,812
운수장비	-58,570
전기가스업	21,108
기계	-29,617
서비스업	16,087
운수창고	-21,681
KODEX 레버리지	104,483
KODEX 인버스	-57,849
KT	49,759
현대중공업	-36,142
기아차	33,458
현대차	-31,116
SK텔레콤	29,609
대우조선해양	-25,282
NAVER	24,720
삼성SDI	-15,351
현대모비스	22,903
만도	-15,189
한국가스공사	17,322
현대건설	-13,578
LG유플러스	15,444
두산인프라코어	-12,922
삼성물산	13,017
엔씨소프트	-10,619
GKL	11,664
한진해운	-10,591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58,328
운수창고	-4,316
운수장비	127,694
은행	-2,684
금융업	79,588
비금속광물	-500
현대차	125,008
현대중공업	-27,394
삼성전자	84,267
SK텔레콤	-16,421
SK하이닉스	43,560
GKL	-7,613
KT	38,417
LG화학	-6,104
신한지주	35,913
팬오션	-6,089
한국전력	32,433
강원랜드	-6,003
KB금융	27,388
LG유플러스	-4,879
KODEX 200	23,125
삼성중공업	-4,351
하나금융지주	16,987
현대산업	-3,038
KT&G	14,051
기업은행	-2,687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928	전문기술	-5,641
통신장비	584	방송서비스	-4,040
기계,장비	561	반도체	-2,439
리튬쿠텐	1,130	CJ E&M	-5,108
코나아이	1,116	CJ오쇼핑	-2,756
다음	833	KG모빌리언스	-1,816
에스에프에이	754	GS홈쇼핑	-1,285
제넥신	664	로엔	-1,026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문기술	1,206	소프트웨어	-2,056
의료,정밀기기	869	인터넷	-1,869
운송장비,부품	744	반도체	-1,805
CJ E&M	1,457	KG이니시스	-4,690
KG모빌리언스	920	다음	-1,837
골프존	815	루멘스	-1,743
오스템임플란트	678	실리콘웍스	-995
코나아이	613	휴맥스	-918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535	소프트웨어	-827
기계,장비	421	IT부품	-632
금속	314	화학	-230
서울반도체	479	KG모빌리언스	-790
태광	317	KH바텍	-587
위닉스	297	다음	-220
뷰웍스	260	파라다이스	-199
컴투스	146	디에이치피코리아	-163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4,546	소프트웨어	-4,282
화학	615	반도체	-2,732
음식료,담배	575	전문기술	-2,573
다음	4,547	서울반도체	-2,079
매일유업	1,068	CJ E&M	-2,050
CJ오쇼핑	595	KG모빌리언스	-1,537
파라다이스	481	차바이오텍	-1,206
오스템임플란트	468	한국사이버결제	-1,125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1,865	소프트웨어	-12,846
오락,문화	1,605	반도체	-11,454
금융	553	전문기술	-6,864
다음	1,944	KG이니시스	-7,435
파라다이스	1,432	서울반도체	-7,235
에스에프에이	1,183	CJ E&M	-4,100
프로텍	1,049	KG모빌리언스	-4,055
성우하이텍	978	한국사이버결제	-2,908
코나아이	871	루멘스	-2,667
젬백스	784	게임빌	-2,204
평화정공	744	CJ오쇼핑	-2,136
국제엘렉트릭	710	인터넷파크	-2,116
골프존	685	로엔	-2,030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소매	6,607	반도체	-10,680
방송서비스	4,680	소프트웨어	-6,340
전문기술	3,489	IT부품	-5,869
리튬쿠텐	6,718	서울반도체	-4,767
CJ오쇼핑	3,809	루멘스	-3,983
CJ E&M	2,311	블루콤	-3,659
ISC	1,660	다음	-3,070
이지바이오	1,396	KG모빌리언스	-3,052
삼천당제약	1,032	파라다이스	-2,924
네오위즈게임즈	961	셀트리온	-1,526
인터넷파크	895	아프리카TV	-1,108
GS홈쇼핑	875	이오테크닉스	-1,093
제우스	848	코나아이	-1,05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TIGER	국채3	22 일	대상
KOSEF	10년국고채	22 일	하나금융지주
대웅제약		11 일	하나투어
POSCO		10 일	현대건설
GS		10 일	대한제분
경방		8 일	금호타이어
한국셀석유		8 일	LG
롯데제과		8 일	KODEX 200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14 일	인터파크	7 일
태웅	13 일	넥슨지티	7 일
SK브로드밴드	9 일	아트라스BX	5 일
메가스터디	6 일	CJ오쇼핑	5 일
에이블씨엔씨	6 일	SK브로드밴드	4 일
매일유업	4 일	하이록코리아	3 일
에스에프에이	4 일	성우하이텍	3 일
젬백스	4 일	에스엠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369,386	현대차
기아차		141,478	삼성전자
삼성전자		104,061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74,468	한국전력
현대제철		70,072	KB금융
KT		69,670	POSCO
SK텔레콤		61,644	기아차
기업은행		55,783	롯데쇼핑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한글과컴퓨터	10,071	리홈쿠펜	15,847
게임빌	6,054	CJ오쇼핑	13,957
다음	5,698	인터파크	3,403
코나아이	3,545	GS홈쇼핑	2,876
OCI머티리얼즈	3,477	이지바이오	2,780
피에스케이	3,143	마크로젠	2,384
SK브로드밴드	2,917	삼천당제약	2,199
매일유업	2,127	바이오스페이스	1,815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6,916	158,328	165,244
통신업		94,812	17,116	111,929
금융업		10,017	79,588	89,605
KODEX	레버리지	104,483	2,168	106,651
삼성전자		9,645	84,267	93,913
KT		49,759	38,417	88,176
SK하이닉스		2,419	43,560	45,978
기아차		33,458	9,439	42,898
신한지주		3,702	35,913	39,614
한국전력		3,584	32,433	36,017
NAVER		24,720	11,279	35,999
KB금융		7,430	27,388	34,818
현대모비스		22,903	10,985	33,888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기계,장비		132	708	840
의료,정밀기기		355	444	800
통신서비스		261	493	754
리홈쿠펜		232	6,718	6,950
성우하이텍		978	580	1,558
제우스		500	848	1,349
컴투스		514	763	1,277
오스템임플란트		213	745	958
유아이엘		421	282	703
매일유업		637	57	694
제넥신		556	48	604
모두투어		497	105	602
휴비츠		483	1	484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SBS	29 일	KPX케미칼	27 일
TIGER 농산물선물(H)	24 일	빙그레	13 일
대상	18 일	현대중공업	12 일
TREX 펀더멘탈 200	14 일	OCI	11 일
삼광글라스	13 일	동부하이텍	9 일
KINDEX 인버스	13 일	쌍용차	9 일
삼성SDI	12 일	락앤락	9 일
롯데쇼핑	10 일	아세아	8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에이테크솔루션	27 일	우리이티아이	11 일
에스엠	15 일	태광	7 일
원익IPS	6 일	시그네틱스	7 일
이오테크닉스	6 일	웹젠	7 일
실리콘웍스	6 일	유진기업	6 일
CJ E&M	6 일	서울반도체	6 일
CJ오쇼핑	5 일	JW중외신약	6 일
우주일렉트로	5 일	에이테크솔루션	6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인버스	-237,195	SK하이닉스	-147,051
삼성SDI	-88,633	현대중공업	-51,926
현대차	-62,442	기업은행	-44,624
현대중공업	-39,036	SK텔레콤	-28,693
삼성중공업	-35,513	NAVER	-25,526
대우조선해양	-34,403	아모레퍼시픽	-25,306
두산중공업	-33,704	OCI	-14,201
고려아연	-26,983	GKL	-13,884

KOSDAQ			
기	관	외	국 인
서울반도체	-48,888	서울반도체	-30,979
CJ E&M	-27,157	다음	-14,717
이오테크닉스	-16,418	루멘스	-9,279
에스엠	-9,222	셀트리온	-5,355
KG모빌리언스	-8,608	파라다이스	-4,585
파라다이스	-8,501	블루콤	-3,890
위닉스	-7,454	코나아이	-2,967
CJ오쇼핑	-6,850	중앙백신	-1,997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창고	-21,681	-4,316	-25,996
종이,목재	-786	-319	-1,105
현대중공업	-36,142	-27,394	-63,536
KODEX 인버스	-57,849	-1,648	-59,497
삼성SDI	-15,351	-1,863	-17,214
삼성중공업	-7,471	-4,351	-11,822
한진해운	-10,591	-848	-11,439
LG화학	-1,140	-6,104	-7,244
현대글로벌비스	-5,451	-817	-6,268
SK이노베이션	-3,798	-2,468	-6,267
팬오션	-126	-6,089	-6,215
대림산업	-1,899	-657	-2,556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반도체	-11,454	-10,680	-22,134
소프트웨어	-12,846	-6,340	-19,186
IT부품	-6,601	-5,869	-12,470
서울반도체	-7,235	-4,767	-12,002
KG이니시스	-7,435	-87	-7,522
KG모빌리언스	-4,055	-3,052	-7,107
루멘스	-2,667	-3,983	-6,650
블루콤	-1,200	-3,659	-4,860
바이로메드	-1,556	-495	-2,050
우리산업	-1,179	-617	-1,796
동성화인텍	-1,172	-600	-1,771
KH바텍	-1,493	-188	-1,681
셀트리온	-134	-1,526	-1,660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LG전자	174	12,895	
삼성전자	7	9,555	
LG디스플레이	268	8,593	
기아차	134	8,044	
현대중공업	46	7,941	
GS건설	162	6,455	
호텔신라	56	6,008	
삼성중공업	202	5,89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90	3,723	
컴투스	25	2,292	
서울반도체	38	1,342	
파라다이스	35	1,187	
CJ오쇼핑	2	948	
리홈쿠펜	58	916	
KG이니시스	64	898	
조이시티	47	822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123	5,713,875	
POSCO	6,859	2,297,607	
SK하이닉스	32,726	1,453,048	
OCI	6,177	1,031,603	
현대중공업	5,438	916,337	
LG전자	11,512	857,633	
현대차	3,429	814,350	
삼성엔지니어링	10,679	759,28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7,634	730,053	
CJ E&M	311	551,342	
위메이드	1,219	246,144	
파라다이스	7,173	240,659	
다음	1,360	164,754	
서울반도체	4,244	146,003	
컴투스	905	83,305	
씨젠	1,619	76,948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 O S P I			
순 증		순 감	
증권	8,628	금융업	-5,974
운수창고	4,870	운수장비	-3,823
서비스업	3,155	건설업	-2,170
현대증권	7,581	BS금융지주	-5,302
한진해운	5,204	한진중공업	-2,838
삼성엔지니어링	1,199	우리금융	-2,159
SK하이닉스	903	대우건설	-2,014
우리종금	892	대우조선해양	-1,704
페이퍼코리아	829	POSCO	-1,655
중국원양자원	821	두산인프라코어	-1,179
기업은행	668	KODEX 200	-969
유진투자증권	611	삼성중공업	-638
LG전자	605	한화케미칼	-58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순 증		순 감	
제약	1,582	반도체	-638
컴퓨터서비스	1,268	통신장비	-514
기계,장비	985	음식료,담배	-286
서한	704	휴맥스	-1,293
큐로컴	691	주성엔지니어링	-1,137
코엔텍	560	파트론	-768
차이나그레이트	471	웨이브일렉트로	-482
키이스트	460	하림홀딩스	-376
코리아나	429	필코전자	-336
우리이티아이	348	하림	-291
리노스	348	유니셀	-253
원익IPS	346	미디어플렉스	-225
유진기업	299	삼천리자전거	-196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7/24(목)	7/25(금)	7/28(월)	7/29(화)	7/30(수)
외국인	5,787.0	3,548.2	1,362.2	174.3	50.3	175.9	363.2	598.5
기관계	-4,057.9	-2,071.3	166.8	-167.9	96.2	120.5	131.0	-13.1
(투신)	-2,568.2	-1,391.3	-357.9	-92.3	23.7	-17.4	-91.8	-180.2
(연기금)	3,527.5	96.2	216.1	29.7	15.9	113.7	52.4	4.3
(은행)	-1,351.5	-252.5	-108.7	-17.2	-8.0	-35.6	-20.4	-27.6
(보험)	1,048.2	294.6	320.0	26.1	-7.4	36.8	106.9	157.6
개인	-1,149.0	-1,243.3	-1,396.1	1.0	-80.1	-266.2	-475.3	-575.6
기타	-580.1	-233.5	-132.8	-7.4	-66.4	-30.3	-18.9	-9.8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7/23(수)	7/24(목)	7/25(금)	7/28(월)	7/29(화)
KOSPI	1,825.7	1,997.1	2,011.3	2,028.3	2,026.6	2,033.9	2,048.8	2,062.0
고객예탁금	17,680.2	18,014.3	14,211.8	14,670.9	14,952.1	14,687.9	15,434.8	16,078.4
(증감액)	1,996.5	3,611.7	334.1	221.4	281.2	-264.2	746.9	643.6
(회전율)	34.2	26.7	29.9	42.0	44.7	39.9	43.1	50.0
실질예탁금 증감	-3,314.4	3,791.6	-13,274.3	253.0	198.0	-335.2	730.8	558.3
신용잔고	44,763.0	39,124.0	41,828.0	5,038.6	5,049.1	5,070.0	5,077.2	5,078.2
미수금	1,877.0	1,241.0	929.0	108.0	100.3	120.5	149.2	132.6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7/23(수)	7/24(목)	7/25(금)	7/28(월)	7/29(화)
전체 주식형	78,398	-7,097	-2,179	-107	-163	-17	-91	-138
(ex. ETF)		-5,097	-2,075	-69	-202	-85	-84	-160
국내 주식형	60,561	-5,489	-1,740	-90	-88	3	-62	-114
(ex. ETF)		-3,489	-1,626	-52	-127	-65	-55	-136
해외 주식형	17,837	-1,608	-439	-17	-75	-20	-29	-24
(ex. ETF)		-1,608	-449	-17	-75	-20	-29	-24
주식 혼합형	10,206	121	-125	-9	-30	-4	-2	-11
채권 혼합형	23,977	510	-662	198	37	-209	13	20
채권형	62,666	2,844	2,637	-21	621	3	-36	156
MMF	79,177	11,982	5,782	-991	-1,123	-71	-243	98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7/24(목)	7/25(금)	7/28(월)	7/29(화)	7/30(수)
한 국	5,791	3,496	2,012	169	49	171	354	609
대 만	10,788	1,370	660	56	-42	91	266	266
인 도	12,134	2,216	23	61	20	-	-	-
인도네시아	4,960	1,124	-59	32	17	-	-	-
태 국	-734	513	-108	37	-31	5	-56	-
남아공	1,822	262	-61	-46	50	-81	19	-
필리핀	1,016	3	-4	-1	-7	5	-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3년	7/23(수)	7/24(목)	7/25(금)	7/28(월)	7/29(화)	7/30(수)
회사채 (AA-)	3.29	2.88	2.91	2.90	2.92	2.93	2.92
회사채 (BBB-)	8.98	8.58	8.60	8.60	8.62	8.63	8.62
국고채 (3년)	2.86	2.64	2.49	2.49	2.51	2.52	2.51
국고채 (5년)	3.23	2.69	2.71	2.71	2.73	2.75	2.75
국고채 (10년)	3.58	2.97	3.01	3.00	3.02	3.03	3.04
미 국채 (10년)	2.97	2.47	2.50	2.47	2.49	2.46	-
일 국채 (10년)	0.74	0.54	0.52	0.54	0.54	0.52	-
원/달러	1,055.40	1,023.70	1,028.60	1,025.90	1,026.30	1,024.40	1,024.30
원/엔	1,003.99	1,008.08	1,010.62	1,007.36	1,008.45	1,003.62	1,003.53
엔/달러	105.12	101.55	101.78	101.84	101.77	102.07	102.07
달러/유로	1.38	1.34	1.35	1.34	1.34	1.34	1.34
DDR3 1Gb (1333MHz)	1.37	1.43	1.43	1.43	1.41	1.43	-
DDR3 2Gb (1333MHz)	2.54	2.29	2.29	2.29	2.29	2.29	-
NAND Flash 16Gb (MLC)	3.43	2.39	2.39	2.39	2.39	2.39	-
CRB 지수	280.17	299.48	298.89	299.04	299.02	297.34	-
LME 지수	3,182.9	3,273.3	3,315.7	3,298.7	3,303.1	3,275.1	-
BDI	2,277	727	732	739	743	747	-
유가 (WTI, 달러/배럴)	98.47	103.12	102.07	102.09	101.67	100.97	-
금 (달러/온스)	1,189.10	1,308.00	1,292.75	1,294.74	1,304.50	1,299.25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1	22	23	24	25
	美> 6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YoY (1.9%, 2.0%, 2.0%) 5월 FHFA 주택가격지수 MoM (0.4%, 0.2%, 0.1%) 6월 기존주택매매건수 (504만, 499만, 491만) 日> 5월 선행지수 CI (104.8, n/a, 105.7)	유럽> 7월 예비 소비자자기대지수 (-8.4, -7.5, -7.5)	韓> 2분기 전기대비 GDP SA (0.6, 0.7%, 0.9%) 2분기 전년동기대비 GDP (3.6%, 3.7%, 3.9%) 美> 7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56.3, 57.5, 57.3) 6월 신규주택매매 (40.6만, 47.5만, 44.2만) 中> 7월 예비 HSBC 제조업 PMI (52, 51, 50.7)	美> 6월 내구재 주문 (0.7%, 0.5%, -1.0%) 日> 6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3.6%, 3.5%, 3.7%) 독일> 7월 IFO 기업환경 (108.0, 109.4, 109.7)
28	29	30	31	8/1
美> 6월 미결제주채매매 MoM (-1.0%, 0.5%, 6.0%) 中> 6월 선행지수 (28~31일) (100.06, n/a, 99.93) 실적발표> 韓 두산중공업, 코웨이	韓> 6월 BoP 경상수지 (달러) (79억, n/a, 93억) 美> 5월 S&P 주택가격지수 NSA (170.64, 171.25, 168.71) 7월 소비자자기대지수 (90.9, 85.4, 86.4) 실적발표> 美 화이자, 머크, 코닝, UPS,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韓 SK, GS건설, KT, 다음, 삼성전기, 한국타이어, 중소기업은행, 유한양행, 만도	韓> 8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75, n/a, 78) 6월 광공업생산 YoY (0.6%, 1.0%, -2.1%) 美> 2분기 개인소비 (n/a, 1.9%, 1.0%) FOMC 금리결정 (n/a, 0.25%, 0.25%) 7월 ADP 취업자 변동 (n/a, 23.0만, 28.1만) 2분기 예비 GDP 연간화 QoQ (n/a, 3.0%, -2.9%) 日> 6월 예비 광공업생산 YoY (n/a, 5.1%, 1.0%) 실적발표> 美 메리어트, 굿이어 타이어, 홀푸드, 메트라이프 韓 네이버, 현대해상, 삼성화재, CJ오쇼핑, BS금융지주, 서울반도체	美> 7월 시카고 제조업지수 (n/a, 63.1, 62.6) 실적발표> 美 크래프트 푸즈, 엑슨 모빌, 마스터카드, 켈로그, 익스페디아	韓> 7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1.7%, 1.7%) 7월 수출 YoY (n/a, 3.0%, 2.5%) 7월 수입 YoY (n/a, 1.4%, 4.1%) 7월 HSBC 제조업 PMI (n/a, n/a, 48.4) 美> 7월 실업률 (n/a, 6.1%, 6.1%) 7월 미시간대 기대지수 (n/a, 81.4, 81.3) 7월 ISM 제조업지수 (n/a, 56.0, 55.3) 中> 7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n/a, 51.3, 51.0) 7월 HSBC 제조업 PMI (n/a, 51.8, 52.0) 실적발표> 韓 SK텔레콤, CJ대한통운, DGB금융지주 美 웨스턴유니온, P&G
4	5	6	7	8
	美> 6월 제조업수주 IBD/TIPP 경기낙관지수 유럽> 소매판매 YoY	美> 6월 무역수지 독일> 공장수주 YoY	유럽> ECB 금리결정 독일> 산업생산 WDA YoY	中> 수출 YoY 수입 YoY 7월 무역수지 日> BoP 경상수지 독일> 6월 무역수지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